

외국 학생운동사의 흐름과 시사점

김도종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서론

어느 나라나 학생운동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학생운동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학생운동을 명쾌히 설명해 주는 독자적인 학문이론은 아직 없다. 그러나 학생운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학생들은 국가경쟁을 책임질 차세대 엘리트들이며 기성세대는 노후를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이나 기성세대나 학생운동 자체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이해, 나아가 운동의

잠재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과거의 실패나 역기능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가 지난 '60년대에 집중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학생운동 자체가 '60년대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학생운동의 10년'이라 불려지는 '60년대 이전에 발생한 운동 중에서도 역사적 의미는 물론 학생운동의 경향과 전개과정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례들이 많이 발견된다. 19세기 중반 독일과 이탈리아의 민족주의는 학생을 비롯한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20세기 전반 대부분 식민지에서 발생한 저항적 민족주의에 근거한 독립운동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제 하에서 3·1운동을 제외한 최대 규모의 반일 저항운동은 학생들이 주도한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난 '80년대 대부분 제3세계의 권위주의 체제를 민주화 과정으로 전환하게 만든 것은 학생을 비롯한 지식인 집단들의 저항운동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그 저항의 물리력은 거의 모두 학생들이 담당한 것이 사실이다.

2. 외국 학생운동의 사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또는 한국 학생운동은 외국 학생운동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거꾸로 혹은 다른 나라들이 학생운동의 준거로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지는 않을까? 학생운동의 옳은 방향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사실 전국 이후 지난 '60년대 초부터 4·19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 학생운동은 최근 한총련 사태로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 역사성과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권의 붕괴 또는 사회와 체제의 변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외국의 변혁지향적 학생운동이 한국의 사례를 본받으려고 하지는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외국 학생운동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그러한 시사점이 우리 학생운동의 바람직한 방향의 모델로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학생운동이 미친 영향과 학생들의 희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한국 학생운동의 양태는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학생운동의 노선과 방법이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요청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생운동이 사회변혁에 미친 영향력의 과다를 떠나 외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수많은 외국의 사례 중에서 학생운동의 발자취가 뚜렷했던 미국, 일본,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 보겠다.

1) 미국의 학생운동

학생운동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학생들의 집단행동'이라고 정의내린다면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미국의 학생운동은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후 2차대전 발발과 전후 후유증으로 인해 1940년대는 학생들의 영향력 있는 운동이 전개되지 못했으며, 1950년대는 냉전의 확산 속에서 극단적 반공주의인 매카시즘의 열풍으로 인해 반정부적·반체제적 또는 반사회적인 집단행동을 벌일 수 없었다. '60년대에 들어오면서 학생운동은 폭발적으로 일어났으나, '70년대 들어서는 급격히 쇠퇴하고 말았다. '70년대는 눈에 띄는 학생운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조용했던 미국 대학이 학생운동의 열기로 다시 휩싸인 것은 지난 '80년대 중반이다. 미국 학생들은 지난 '80년대 중반 남아프리카 보사 정권의 흑인 학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그곳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철취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임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후 미국 캠퍼스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학생운동이 많은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의 양심을 일깨우는 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때 미국의 학생운동은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다.

'60년대 미국 학생운동이 갖는 의미는 자본주의체제 아래에서 미국 학생들은 진보세력의 전위대 역할을 하였으며, 2차대전 후 세계 지도국으로 등장하여 오만해지고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진 미국 사회의 양심을 일깨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또한 반전운동을 중심으로 했던 학생운동은 미국 사회에서 여성운동, 환경운동, 동성연애자운동, 소수민족운동 등이 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면 '60년대 미국 학생운동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60년대는 풍요의 시대였다. 풍요에 따른 퇴폐성이 노골화되기 시작한 시대였다. 히피가 등장했으며, 프리섹스와 마리화나가 퍼진 시기이기도 하다. 즉, '60년대 젊은 세대는 보수적인 기성세대가 가졌던 것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사회적 성공이나 부의 축적이 아닌 자기만족이었다.

많은 학자들이 '60년대 학생운동을 세대간의 갈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대갈등이란 가치관의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학생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경험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2차대전을 경험한 기성세대는 나찌의 유태인 학살 기록필름을 볼 때마다 파쇼 전체주의에 대한 적개심과 혐오감을 가졌지만, 젊은 세대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더 컸다. 그리고 그러한 학살이 진행되는 것을

과연 우리 정부가 몰랐을까, 방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이었다.

또한 전후 미국 사회의 보수화와 관료화도 학생들의 반발을 일으키기에 큰 역할을 했다. '50년대 말과 '60년대는 대학이 급팽창한 시기였다. 대학의 양적 성장은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고, 교육환경은 열악해졌으며, 대학사회도 관료화되면서 비인간화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실망이 컸다. 급격히 늘어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학교당국은 많은 규제를 가하였으며 교수와 학생들의 인간적인 교류는 없어져 갔다. 이는 '80년대 우리나라 학생운동에서 대학의 급격한 팽창이 미친 영향이 크다는 분석과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학생운동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60년대는 우리나라의 '80년대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87년 6·29 선언은 존슨 대통령의 재출마 포기과 같은 의미가 있으며,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와의 가치관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결국 학생들이 추구하였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사회변화의 중추세력으로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유사하다 하겠다.

2) 일본의 학생운동

일본 학생운동의 본격화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소위 대정 민주시대 때 시작됐다. 1차대전 이전의 학생운동이 계몽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의 갈구였다면, 전후 '20년대 학생운동은 급격히 사회주의에 대한 탐구 및 실천운동으로 변하였다. 이는 외부변화에 영향받은 바도 크지만, 일본의 자본주의 발전 및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일어난 노동문제와 미진한 사회개혁에 좌절감을 느낀 학생들이 스스로 혁명적 이

념성을 운동에 가미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공산당의 지도력이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지도적인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1925년 치안유지법의 제정과 함께 불어닥친 좌익세력을 비롯한 반체제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1930년경에 이르면 학생조직과 운동은 모두 지하화하고 만다.

2차대전 종식 이후 패전국 일본에서 부활된 학생운동의 사상적 전통은 戰前의 것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戰後 일본 학생운동을 상징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全學聯(전일본학생자치총연맹)이다. 1948년 9월 18일 결성된 전학련의 등장으로 학생운동은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었다. 이 조직은 당시 세계 최대의 학생조직으로 알려졌다. 1960년 안보투쟁을 거쳐 '60년대 말 도시계열라 형태의 급진 모험주의파가 등장하기 전까지 학생운동을 주도한 전학련은 그후 내부적으로 수많은 노선투쟁과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분화를 거듭하여 그 세가 크게 약화되었다. 현재 전학련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세 개의 단체가 존재하며 그 명맥은 유지되고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전학련의 출범과 함께 전후 일본 학생운동은 조직력과 학생대중 동원능력에서 전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학련의 결성 배경을 살펴 보기로 한다. 전후 일본의 학생운동은 전쟁을 패전으로 이끌었던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과 미점령군의 통치에 대한 반발, 전후 재건된 일본공산당이 갖는 비전향성에 바탕을 둔 도덕성 등으로 쉽게 이념화될 수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교육개혁을 무리

하게 추진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 대한 규제와 탄압의 강도를 높이자 학원문제는 학원사태로 발전되며, 학생들은 학간투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직화를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전학련이 결성되고 이 지도부를 이념화된 학생들이 장악함으로써 일본 학생운동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전국 규모의 학생조직을 갖추었던 일본 학생운동이 결국 소멸된 것은 현실성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강경투쟁을 벌임으로써 운동역량을 소진시켰기 때문이다. 점점 약화되어 가는 학생운동을 우려하여 일부 급진세력이 무장투쟁이라는 무모한 전술을 택함으로써 운동권과 학생대중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말았다. 현재까지도 일부 학생들은 환경운동, 농촌운동 같은 사회운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정치적 성향을 띠고 대중 동원력을 확보한 학생운동은 지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멸되었다.

3) 프랑스의 학생운동

프랑스 학생운동의 기원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1877년부터 지역단위의 학생조합이 결성되기 시작했다. 금세기 들어와 각 대학에 존재하던 여러 학생단체들은 전국 규모의 조직화를 시도하여 1907년 전국학생조합(UNEF : Union Nationale des Etuants de France)을 결성하였다. 전국학생조합은 1차대전 이후 1920년대, '30년대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받아낼 수 있었다. 정부는 전국학생조합을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선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복지문제 이외에는 다른 분야에

관심을 안 갖는 전국학생조합의 경향은 2차대전 독일군의 점령기간 중에도 계속되었다. 1943년 2월, 학생을 포함한 프랑스 청년들의 독일 내 강제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령에도 전국학생조합은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1946년 프랑스의 대학생 숫자는 약 123,000명이었다. 이 중 25% 가량이 反獨 레지스탕스 투쟁을 벌인 경험이 있거나 독일에서 강제노동을 하다 복학한 학생들이었다. 저항파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전쟁 기간중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 고도로 정치화되고 전국학생조합이 보여준 비저항적인 태도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저항파 내의 강경파는 자신들이 별도로 세운 학생조직을 활용하여 전국학생조합이 벌이는 활동을 잠식해 나가자는 주장을 폈으며, 온건파는 전국학생조합에 참여하여 그 지도력을 장악하자는 주장을 폈다. 저항파는 후자의 전략을 선택하였다. 결국 1946년 조합선거에 참여하여 저항파가 다수파인 비저항파를 누르고 지도부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저항파가 지도부를 장악하자 전국학생조합의 성격과 투쟁방법이 급변하였다. 과거 戰前의 학생운동이 단순한 조합주의적 성격을 띠었다면, 전후 학생조합의 활동은 저항주의가 가미된 전투적 조합주의였다. 저항파가 지도부를 장악한 전국학생조합은 학생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학생들은 보험 혜택에 그치지 않고 그 관리까지도 장악하였다.

1950년에 이르러 프랑스 정국도 안정되고 전쟁 기간중 무장투쟁의 경험을 가졌던 저항파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소수파가 되었고 전국학생조합은 다시 조합주의로

회귀했다.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 학생대중이 급격히 탈정치화되는 가운데 전국학생조합은 새로운 쟁점을 찾아내지 못한 채 방황 설정에 실패했고 가입회원들 숫자마저도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 학생들은 1968년 5월 봉기라는 사건을 이끌어낸다. 전국학생조합은 '68년 학생봉기가 발생할 당시 겨우 15%의 학생만이 가입하고 있었다. 파리 근교의 낭테르 대학에서 발단이 된 5월 봉기에서 학생들은 파리 시가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진압경찰과 야간 시가전을 벌였으며, 학생들의 투쟁은 결국 노동자 파업으로 이어져 약 1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프랑스 전체를 위기상황으로 몰아 넣었다.

단기적으로 '68년 5월 봉기는 결국 진압되었다. 중기적으로는 곧이어 실시된 총선거에서 좌파가 참패해 드골이 다시 한번 승리했다. 그러나 다음 해 드골은 국민투표에서 신임을 얻는 데 실패하여 사임하였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프랑스를 지배해왔던 권위주의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68년 5월 학생봉기는 단기적인 정치적 영향력보다 장기적인 사회·문화적 영향이 훨씬 컸던 것이다.

'68년 5월 봉기 이후 정부가 학생들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곤란을 겪은 일은 없었다. 적어도 그후 20년 가까이 학생들의 관심분야와 정치는 별개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6년 시라크 수상의 보수내각이 제시한 대학교육 시안이 학생들을 자극함으로써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재연되었다. 이 시위의 성격은 비정치적이었고 평가받는다. 학생들 스스로도 정권이나 내각의 퇴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쟁점을 살펴보면 프랑스 고등교육부는 대학의 90% 이상이 국립 대학인 상황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학제도를 변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드바크(당시 고등교육부장관) 개혁안을 입법화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 교육개혁안은 학생시위로 인해 철회되었다.

종합하면 '86년 사태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태도는 또다른 의미의 조합주의의 발현이었다. 시장경쟁의 원칙을 도입, 대학의 질적 향상을 시도하려던 우파의 개혁안을 좌절시킨 것은 고등학생들을 포함한 학생들의 경쟁체제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집단이기주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학비의 추가 부담을 바라지 않는 학부모들도 심정적인 동조를 보인 것은 사실이었다. 프랑스 학생들은 평등 원칙에 기초한 적정 수준의 교육의 질을 바란 것이지 능력에 따른 경쟁에 기초한 최고 수준의 교육의 질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프랑스 학생들의 조합주의에는 평등이라는 이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또한 2차대전 이후 현대 프랑스 정치에서 정국의 우경 보수화를 좌절시키는 성과를 여러 번 거둔 프랑스 학생운동의 전통을 다시 한번 발휘한 것이었다. 알제리 사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식민주의로의 복귀를 좌절시켰고, '68년 5월 봉기는 결국 드골을 퇴진시켰다. 그리고 내각을 장악한 보수파가 우경화 정책으로 택한 교육개혁안을 좌절시킴으로써 좌파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조합주의적 경향 속에서도 이념의 맥이 살아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지난 '93년 11월 15일 파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86년 이후 처음 발생하였

다. 우파 내각이 재정 적자를 이유로 학생들에게 지급하던 주택수당을 삭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우 '68년 이후 분열된 채 별다른 역할을 못하던 전국학생조합이 시위의 조직을 주도했다. 우파 내각의 우경화 개혁 시도가 학생들의 반대에 직면하는 전통적인 현상을 다시 한번 보였던 것이다.

3. 시사점 및 결론

학생운동의 유형은 크게 '조합주의 모델'(corporatist model)과 '변혁지향 모델'(reformist model)로 나눌 수 있다. 학생운동은 자기이익(self-interest)에 의해 동원화가 일어날 경우 조합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며,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면 변혁지향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프랑스 학생운동은 그 기초가 조합주의를 유지해왔다. 프랑스는 18세기 말 시민혁명 이래 '진보 대 보수' 또는 '좌우대결'이라는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학생들은 일면 이념대결에 편입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념에 근거하지 않은 채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적 판단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철저한 변혁주의 모델이었다. 일본 학생운동의 전국적 조직인 전학련의 지도부는 '50년대 후반까지 제도권 정당인 일본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日共은 체제 수용적인 자세로 선거를 통한 혁명의 성취를 노선으로 채택했다. 그러한 日共에게 체제를 부인하는 전학련의

노선이 큰 부담이었음에 틀림없다.日共은 결국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는 전학련 지도부 학생들을 제명함으로써 전학련이 유지해왔던 제도권과의 연계고리를 끊어버렸다. 일본 학생운동은 체제부정적인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결과는 대중성의 상실로 이어졌고 '70년대 중반 학생운동의 소멸로 나타났다.

전학련이 주도한 일본 학생운동은 왜 대중성을 상실하고 소멸되었을까? 일본 학생운동은 지난 '50년대 이미 이념화와 조직화를 양측으로 하는 제도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념화가 교조화로 변질되고, 조직화는 조직의 비대로 인해 관료화 현상과 그 폐해가 노출되었다. 한마디로 학생운동 조직 자체가 비민주화되었다. 교조화·관료화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생운동 지도부 내부의 노선투쟁에서 강경과가 득세하고 학생대중과의 연대감이 저하되는 경향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학생운동을 포함한 대중운동은 제도화되는 시점부터 대중과 운동권과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여 정치화된 운동권 소수와 탈정치화된 대중으로 이분화된다. 프랑스 학생운동권의 한 좌파의 모토인 “제도화는 죽음이다.”는 학생운동의 제도화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일본, 프랑스 학생운동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나 교훈은 무엇일까? 학생운동은 지난 '30년대 독일과 이탈리아의 극우성향의 운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항운동이다. 그 저항운동은 사회변혁 내지 급진적일 경우 체제부정의 모습을 띠게 된다. 우리나라 학생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말 이후 한국의 제

도권은 빠른 속도로 합리성을 회복하고 있다. 비제도권 세력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재야세력이라는 용어가 주는 왜소함과 구태의연함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한 세기가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학생운동이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학생회 조직은 그 성격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변혁지향 모델’에서 ‘조합주의 모델’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아직 사회제도권의 부조리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를 개선-개혁할 세력이 제도권 내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 학도들이 사회변혁의 책무를 포기하려면 어찌자는 말인가 하는 반론이 나올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사회발전의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면 조합주의 모델론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리라 믿는다.

해방 이후 또는 지난 '6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면, 학생집단이야말로 자본주의 성숙과정에서 심화된 사회부조리에 항거하여 사회개혁과 변혁을 지향하는 양심세력의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산업화로 상징되는 근대화의 과정에 사회 각 분야는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그 과정에 동원-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해방 이후 지속돼온 분단구조가 이러한 강제성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적 부담을 가장 적게 가졌던 학생집단이 모순과 부조리에 항거하지 않았다면, 우리 사회의 선진화는 요원했을 것이다. 따라서 '80년대의 10년 가까운 변혁운동과 투쟁 속에서 학생들의 희생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근대화와 민주화의 기반을 동시에 다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목표로서의 근대화과 민주화는 그전 시기의 것과는 새로운 성격을 갖는다. 과거와 같은 단기적인 효과성을 내기 위한 근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근대성의 성숙화가 되어야 하며, 민주화 또한 군부독재 타도와 같은 저항적 민주화가 아닌 사회 각 부분의 전문화와 자율화를 통해 독립적 권위를 인정받는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 이같은 변혁과정에서는 물리력과 사회적 양심만을 무기로 하는 운동은 주도성이나 선도성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이제 사회변혁의 주도세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권위 회복과 전문성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학생운동의 조합주의 모델이란 일반 학생들의 단기적이고 표피적인 이익을 추수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는 학생집단을 포함하는 대학이라는 조직이 사회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걸맞은 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맞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대학교육을 포함한 캠퍼스 라이프 자체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는 학생회와 일반 학생들의 긴밀한 유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과 같이 학생회를 포함한 운동권은 외부지향적 정치투쟁에 몰두하고 다수의 학생은 지도력의 부재 속에서 내부지향적 이기주의에 지배를 받는다면, 대학발전의 방향은 대학당국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대학의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들은 피동적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5~6년은 대학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의 대전환기이다. 학생운동의 변혁지향적인 일차 역할은 이미 끝났다. 새로운 시대의 전개를 선도할 학생집단의 역량 축적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는 조합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

김도중/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석사, 아리조나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세계의 학생운동』이 있으며, "한국 학생운동의 전개와 특징", "학생운동의 이념화, 조직화, 그리고 제도화 : 한국, 일본, 프랑스 사례의 비교연구", "전환기의 비제도권 정치세력 : 권위주의, 민주화, 학생운동"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